

춘천~철원~원산 고속도로 연결 주목

최지사,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의 앞두고 국토부에 요청

도가 춘천~철원~원산 고속도로 연결을 남북 도로협력 부문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최문순 지사는 최근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을 만나 중앙고속도로의 춘천~철원 구간 연장을 요청했다. 해당 노선이 남북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남측 단절 구간인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

관은 사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정부 지원을 위해 철원을 남북협력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남북 철도·도로협력 분과 남측 수석대표다. 이에 따라 28일 열리는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의에서 해당 노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8일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춘천에서 열린 북방경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춘천~철원~원산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춘천~철원 고속도로는 춘천시 사북면~화천군 하남면~철원군 근남면까지 연결하는 총 63km 구간이다. 춘천~원산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통일 시대 한반도의 한가운대를 가로지르는 동북아 물류 이동의 핵심 노선이 된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철의 실크로드’ 동해북부선 가시권

동해·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내달 24일부터 북 구간 진행
정부 신북방정책 주요현안
동해북부선 조기착공 채택
도, 예타면제 정부 건의

남북이 내달 중순 동해선 철도(제진~금강산)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고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신북방정책 확정과제에 동해북부선 조기 착수가 주요현안으로 포함,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남북철도분과회의에서 남북은 내달 중순부터 동해선 철도 및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 공동점검 후,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 통신 개설 등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내달 24일부터는 경의선 북측 구간인 개성~신의주에 대한 공동조사가 먼저 진행된 후 동해선 북측 구간인 금강산~두만강에 대한 공동조사가 이어진다. 또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설계, 공사방법 등 실무적 대책을 마련해 그 결과에 따라 착공식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남북 철도와 관련, 정부의 구상은 남북간에 끊어진 철도를 이은 후 이를 시베리아·중국·만주·몽골 등 4개 대륙 횡단철도와 연결,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서울~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은 지난 2003년 문산~개성 구간이 복원, 노선 자체는 개통됐다. 동해선은 지난 2006년 제진~금강산 구간이 연결됐고, 강릉~제진(104.6km) 구간이 단절됐다. 동해선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동해권 경제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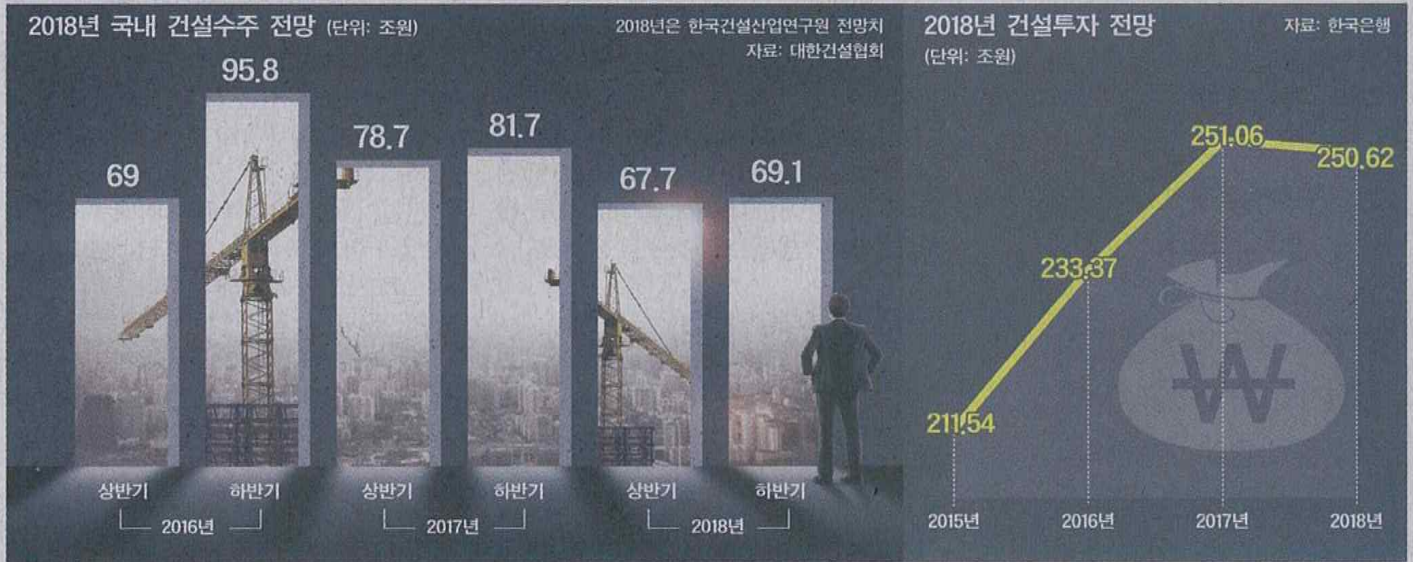
력벨트를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또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신(新)북방정책 4대 목표 및 14대 중점 과제’ 중 유라시아 복합물류망을 목표로 한 통합네트워크 구축에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이 제1과제로 채택,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는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세현·이철·김미화)가 진행 중인 침목 모금 운동 동참에 나설 준비를 본격화하는 한편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중앙정부에 재촉했다.

도관계자는 “예비타당성이 면제되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 당초 7년으로 예상된 공기를 약 3~4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은 pje@kado.net



“하반기 건설수주 69.1兆 지난해보다 15.4% 급감”

하반기에는 주택경기 하방압력이 거세지고, 공공 수주마저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국내 건설수주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15.4% 이상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국내 건설수주는 14.7% 줄어든 136조8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 역시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취업자 수가 2만4000명 줄고, 경제성장률도 0.21% 포인트 하락하는 등 국내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7일 ‘2018년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건산연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주택경기의 하락속도가 가파른 가운데 공공 수주가 완충 역할을 못하면서 건설·주택이 동반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반기 국내 건설수주 전망치는 69조 1000억원 규모로 내다봤다.

공공 수주는 정부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과 신규 사업 감소로 지난해보다 6.6% 감소한 23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민간 수주는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 수주가 부진하면서 19.4% 줄어든 45

건산연, 건설·주택경기 전망

주택시장 고강도 규제에 침체 공공수주 4년만에 최저치
취업자수는 2.4만명 감소
성장률도 0.21%p 하락
韓경제 미치는 충격 클 듯

조5000억원으로 점쳤다. 토목(5.1%)은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된 반면 건축(-21.6%)은 주거(-27.7%) 건축수주 급감으로 나뉘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수주 전망치로 보면 공공(-14.3%)과 민간(-14.9%), 토목(-7.3%)과 건축(-17.4%) 등 전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흥일 건산연 경영금융연구실장은 “주택시장 호황에 기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수준의 호조세를 보인 건설수주가 올해를 기점으로 ‘3년 호황’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경기의 빠른 하락세는 국내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산연은 하반기 건설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1.3% 감소한 132조8400억원으로

추산했다. 건설투자가 하반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2년(-4.6%) 이후 6년 만이다.

이로 인해 취업자 수(-2만4000여명)와 하반기 경제성장률(-0.2%포인트)을 끌어내릴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 건설투자 역시 0.2% 감소할 것으로 봤다.

하반기 주택시장은 금리와 준공 증가, 정책규제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국 매매가격이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2%)과 지방(-0.8%) 모두 하락세를 점쳤다.

다만, 남북 경협 수혜지역인 파주 등 접경지역과 입지 리스크가 적고 수익률이 확실한 특정 단지·지역·상품에 대한 분양 열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가격은 연간 2.2% 하락해 14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분양물량은 28만가구로 전년보다 10%가량 줄고, 인허가 역시 14% 감소한 56만가구로 추정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택경기가 빠르게 하강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고 속도 역시 가파르다”면서 “2019년까지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맞는 정책 대응과 사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kth@